



'2025남원 춘향 전국마라톤대회' 성황리 마무리

남원시는 지난 23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2025 남원춘향 전국마라톤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 전국마라톤협회, 남원시육상연맹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였으며, 대회는 폴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 총 4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기량을 겨뤘다.

식전 행사로는 트로트 걸그룹 '티엔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케냐 국적의 외국인 페이스메이커 5명(폴코스 2명, 하프 1명, 10km 1명, 5km 1명)과 '남민리' 심진석 선수의 활약이 더해져 열기를 높였다.

70대까지 남녀노소가 참여,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었으며, 원주 메달에 개인 기록을 새겨주는 서비스와 기록 칩과 연동된 포토존은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아이디어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간호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SEED팀(김소희·김지은·김서현·김예은)이 지난 21일 열린 2025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수상작인 '열이 올라요'는 소아 화아의 진료 전 강간 정보를 보호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진에게 사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소아 진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보 불일치·누락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웅지하이텍, 정읍시에 장학금 등 기탁

㈔웅지하이텍(대표 송상우)은 24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20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송길수 회장과 송상우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기탁금은 이웃돕기 1000만원, 장학금 1000만원으로 지정돼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웅지하이텍은 정읍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지역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신림면, 면민 화합한마당 잔치 열려

고창군 신림면체육회(회장 임성용)가 지난 22일 신림다목적체육관에서 '신림면민 화합한마당 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과 향우, 그리고 각 기관사회단체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면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농악, 판소리, 고고장구 등 흥과 멋이 가득한 공연은 물론, 신림중학교 밴드부와 다양한 초청가수의 공연이 이루어져 활기찬 에너지를 더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투호, 고리걸기, 주사위던지기 같은 민속경기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된 면민 노래자랑에서는 주민들의 끼와 재능이 한껏 벌휘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고창=김영식 기자

강직성 척추염 치료 새로운 가능성 제시

박소연·권민석 학생, 난치성 질환 강직성 척추염 논문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



박소연 학부생



권민석 학부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한의 학과 학부생이 난치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대한 심층 리뷰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르면 박소연·권민석(이상 1년) 학생은 김대용(한의 예과) 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행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생의학 보고서(Biomedical Reports)'에 게재했다.

이번 논문은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있어 대체 의학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라는 제목으로, 침 치료와 한약 치료 등 한의학적 접근이 통증 완화와 염증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 임상 문헌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체의학적 치료가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박소연·권민석 학생은 "난치성 질환 연구에 학부생으로서 기여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의학의 과학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용 교수는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확립과 난치성 질환 치료 연구를 지속 지원해 학생들이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국을 물들인 '진안홍삼배 배드민턴대회' 성료

진안군은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2일간 진안 문예체육회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진안홍삼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배드민턴 동호인 95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며, 동호인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3개 부문에서 연령별 A~E급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대회 결과, △남자 복식에서는 35세 미만부 8개팀, 35~44세부 6개팀, 45세~49세부 4개팀, 50세 이상부 6개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 복식에서는 35세 미만부 4개팀, 35~44세부 7개팀, 45세~49세부 5개팀, 50세 이상부 2개팀, △혼합 복식에서는 35세 미만부 4개팀, 35~44세부 3개팀, 45세~49세부 4개팀, 50세 이상부 4개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실무교육 성과 공유회 개최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은 지난 21일 영농창업 실무교육의 성과를 한데 모아 소개하는 '2025 영농창업역량교육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교수진과 학생, 사업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창업 동아리 활동 발표, 비즈니스 모델(BM) 경진대회, 성과 총평 및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동아리 발표에서는 원예·축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붉은악마', '블루망스', '담백 2.0', '리프' 등이 1년간의 재배·실습·판매·기획 활동을 공유하며 학생 주도형 교육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제 영농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습 과정과 판매 실험, 지역 농가와의 협업 사례 등이 소개되며, 학생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영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에서는 학생들이 농가에서 직면한 문제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농업·식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실무형 BM 설계, 소비자 분석, 시장성 검토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발표들이 이어지며 현장형 창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업단 출신 졸업생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재배한 팔기로 만든 팔기우유('팔기밥상' 김명신 대표)와 축산을 상징하는 계란 10구('구쁘'·'옹암옹암')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은 지난 20일 황토현농협 공동급식소 앞 광장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2025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나눔 실천을 위한 이번 행사를 위해 유형기 조합장과 농기주부모임 회원 및 임직원 80명이 참여하여, 18일부터 사흘간 직접 김장재료 수확 및 순질과 김치 양념을 만들었으며, 20일 행사에는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취약 계층과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비전대, 전북형 통합돌봄 지산학 협력협의회 출범식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21일 통합돌봄 산업체 공동 채용 박람회 및 지산학 협력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아동·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통합돌봄 분야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 기관을 폭넓게 참여시킨 자리로, 현장에서 채용 설명회·상담·면접 등이 운영되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

동시에 RISE 휴먼리아프케어 분야의 추진 방향과 정책 소개가 이뤄져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의 향후 확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지산학 협력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청을 포함한 10개 공공기관, 산업체 돌봄 관련기관 23개, 전문대학 등 2개교가 공동 MOU를 체결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 기반의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협의회는 고령화, 돌봄 공백, 지역 소멸 위험 등 지역사회 핵심 과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산업체·대학이 협력하는 상시적 네트워크로 운영될 예정이며, 전주비전대



는 교육·현장·정책을 연결하는 실질적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우병훈 총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채용이나 협약을 넘어 전북형 통합돌봄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와 함께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구천동농협, 설천중 1학년들에게 무선이어폰 전달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24일 설천중학교(교장 최종철)에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들에게 농업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이나 자기주도 학습 등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무선 이어폰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무선이어폰은 농협재단이 후원했다.

김성곤 조합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농업인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장애인복지관,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온열매트 전달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KBS강태원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복지관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어르신 물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8가구를 직접 찾아 온열매트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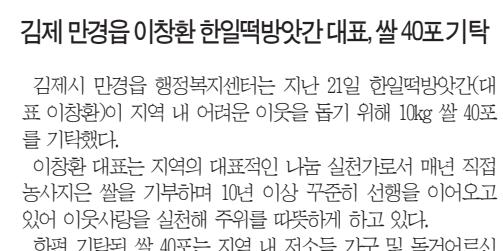
이번 지원은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추진한 2025년 어르신 물품지원사업 '겨울쿨쿨'에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장애인 가정을 돋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관 직원들은 대상자로 선정된 총 8가정을 직접 방문해 온열매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물품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온열매트를 전달받은 한 독거 장애인 어르신은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겨울은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금구면 복지기동대, 노후 주택 긴급 점검 봉사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한일떡방앗간(대표 이창환)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10kg 쌀 40포를 기탁했다.

이창환 대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나눔 실천가로서 매년 직접 농사지은 쌀을 기부하며 10년 이상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한편 기탁된 쌀 40포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 및 돌이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종양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4791 송천지사 256-2404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84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천지사 010-8329-6677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845-9935 군산지사 010-8329-6677 부